

《儒林外史》의 여성인물과 吳敬梓의 여성관*

— 兩性關係의 시각을 중심으로

金曉民**

<目 次>

1. 머리말
2. 일그러진 관계와 주변자의 비극
3. 복합 젠더와 양성관계의 두 양상
4. 평등의식과 양성 공존의 지향
5. 맺음말

1. 머리말

청대 지식인 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한 걸작으로 꼽히는 《儒林外史》에는 지식인 인물형상 외에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이 생각 외로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작품의 주요 관심이 지식인 사회에 있는 까닭에 이러한 비지식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 양적 규모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미미한 형편이다. 그 중 본고에서 주목하는 여성인물은 비록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인물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작품 가운데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군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껏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작품 속의 여성인물 문제가 그저 부차적인 군소인물군 층위의 문제에 불과할 것이라는 일종의 선입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비지식인 인물들이 단순히 지식인 사회의 문제를 조명하는 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005-J01901)

** 高麗大學校 世宗캠퍼스 中國學部 副教授

동원된 보조적 수단일 뿐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태도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작품에 왜 적잖은 여성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은 또 어떤 의식과 서사전략에 의해 그려지고 있으며, 작품의 주제 구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나아가 작가가 여성 인물형상을 다루는 특별한 경향이냐 작가의 여성관은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의미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의문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질문들이 작품과 작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인문적 가치를 재인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유림외사》에는 수십 명의 여성인물이 등장하되,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비중 있게 다루지는 趙姨娘, 王太太(胡七), 聘娘, 魯小姐, 沈瓊枝, 杜少卿의 처 등 여섯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들 인물이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무게만큼 그들이 지니는 의미와 그 이면에 스며있는 작가의 사고가 집중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작품의 여성 인물형상에 접근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들의 면면만을 자세히 살피는 일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 그러한 작업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필자가 볼 때 작품 속 여성인물들을 작품의 전체적 구도 가운데서 관찰하고 또 그 안에서 작가의 여성관을 온전히 읽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인물이 관련 맺고 있는 남성 인물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게 해야만 지식인 문제에 중점을 둔 작품에서 여성 인물들이 가지는 의미와 작가의 여성관이 입체적으로 간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품의 여성인물을 그 인물형상 자체보다는 남성 인물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양성관계 속에서 여성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다루지며 거기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아울러 그 속에서 작가가 여성에 대해 어떤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여성인물의 기본적인 특징과 그들이 다루지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 일그러진 관계와 주변자의 비극

작품 가운데서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지는 여성 인물인 趣姨娘과 王太太, 聘娘은 서로 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인물 유형상 같은 부류로 간주할 수 있다. 우선 세 인물 모두 하층민 출신으로 부귀공명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으며 신분상승의 강렬한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또 각기 첩, 첩살이 경력을 지닌 재혼녀, 기녀 등의 신분으로 전통시기 사회적 약자인 여성 가운데서도 더욱 천대받는 주변적 존재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점은 이들 인물의 주요 특징이기도 한데, 이는 이들이 처한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각된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서 드러나는 양성관계가 상호간의 진정한 소통과 공존의 그것이 되지 못하고 서로 어긋나고 일그러진 관계로 드러나며, 그로써 결국 비극적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귀공명에 대한 욕망을 각종 사회 모순의 최종심급으로 파악하는 작가의 현실인식이 양성관계와 여성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인식이 이들 세 인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이낭¹⁾은 嚴監生(嚴致和)의 첩으로 등장하여 엄감생 처의 죽음으로 正室이 되는 인물로서, 엄감생과 嚴貢生(嚴致中) 형제 및 엄감생의 처남 王德, 王仁 형제(둘 다 廩生 신분)에 대한 묘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식인 사회의 문제에 무게를 둔 작품의 전체적 흐름에서 보자면 조이낭은 엄씨 형제와 왕씨 형제의 속물적 내면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이 인물을 단순히 보조적 기능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조명한다. 특히 조이낭이 정실 지위를 획득해가는 과정과 엄감생 사후 시아주버니인 엄공생과의 유산 싸움 과정에서 그녀는 서사의 주요 초점이 된다.

조이낭은 은전 십여 만 냥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가진 엄감생의 첩으로 살지만, 정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집안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주변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다만 정실이 아들을 보지 못한 까닭에 조이낭은 이 유리한 조건을 기반으

1) 제5, 6, 18회에 등장한다.

로 정실이 되기 위한 꿈을 키워간다. 마침 정실 왕씨가 중병을 얻자 조이낭은 아들을 무기 삼아 왕씨가 죽기 전에 정실 자리를 약속 받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겉으로는 왕씨의 병을 깊이 슬퍼하며 정성껏 간호하는 듯 행동하지만, 정실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녀의 강렬한 욕망이 행간을 통해 드러난다. 병세가 호전되지 못할 것을 안 왕씨는 결국 자신의 사후 조이낭이 정실이 되도록 허락하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조씨는 부리나케 남편을 불러다 부인의 말을 전했다. 엄치화는 그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연신 이렇게 말했다. “기왕 이렇게 된 이상 당장 내일 아침에 처남들을 모셔다 이 일을 확정지어야겠소. 그래야 증거가 서니까.”(제5회)

왕씨의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이제까지 슬퍼하며 극진히 간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뜬 모습을 보이는 조이낭의 반응에서 정실이 되고자 했던 욕망의 크기가 여과 없이 드러난다. 흥분된 반응을 보이기엔 엄감생도 마찬가지이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 일을 도모해 왔음이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 왕씨에 대한 조씨의 태도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조강지처가 와병중인 상황에서 보이는 엄감생의 태도에서도 부부관계의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어 정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친척들을 불러다 혼례를 올리는 대목에서는 이 같은 희비극이 정점에 달한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큰 사례금을 받고 기뻐하며 엄감생의 혼사를 적극 돕는 왕씨 형제의 태도에서 지식인의 몰양심과 부도덕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그런데 조이낭이 정실 자리를 잇는 문제를 조이낭과 엄감생이 공모해 왔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과 소통의 그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하층민 출신인 조이낭이 바라는 것은 富家の 마님으로 살고자 하는 기생적 욕망뿐이고, 엄감생은 그저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기울일 따름이다. 이에 조이낭이 정실이 된 후 씹씹이가 큰 것에 대해 수전노인 엄감생은 마뜩찮게 여기기 시작한

2) 趙氏忙叫請爺進來，把奶奶的話騙說了。嚴致和聽不得這一聲，連三說道：‘既然如此，明日清早就要請二位舅爺說定此事，纔有憑據。

다.³⁾ 병이 위중해져 후사를 부탁함에 있어서도 조이낭은 뒷전이고 왕씨 형제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과거공명⁴⁾을 아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할 따름이다. 이 역시 죽어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바람에 다름 아니다. 엄감생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등잔에 심지가 두 가닥이 타는 것이 아까워 차마 숨을 거두지 못할 정도로 맹목적인 수전노로 그려진다. 조이낭은 그의 그런 ‘뜻’을 마음으로 아는 유일한 ‘지기’인 듯 그려지지만, 엄감생이 죽음을 앞두고도 아내 조이낭에게 별 미련을 보이지 않듯 조이낭 역시 엄감생 사후 막대한 유산과 주인으로서 지위를 마음껏 누릴 따름이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단지 서로 각각의 속된 욕망과 이해가 부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서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며 교감하는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부가의 주인으로서 조이낭의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엄감생 사후 어린 아들마저 병으로 죽자, 엄공생이 그 재산을 탐내 그녀의 정실 지위를 부인하며 자기 차남을 상속자로 내세우게 된다. 향신으로서 권세를 앞세운 엄공생의 횡포에 조이낭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관아에 억울함을 알리는 등 대항을 해보지만 역부족이다. 누이동생이 죽어가는 가운데 금전에 눈이 어두워 조이낭이 정실이 되도록 적극 도왔던 왕씨 형제도 엄공생의 전횡을 알면서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발뺌하기에 바쁘다. 조이낭은 결국 관아로부터 정실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하나 약간의 재산을 되찾은 것 외에 모든 것을 잃고 만다. 끝내 그녀에게 남은 것이란 사실상 아무런 지위도 의미도 없는 정실이란 ‘허명’뿐이다.

한편 이 재산 싸움 과정에서 조이낭은 권세를 앞세운 엄공생의 횡포에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저항의 힘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믿었던 왕씨 형제도, 친족들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 누구도 그녀를 위해 나서주는 이가 없다. 부귀공명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조이낭이 작가의 풍자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이 같은 재산 싸움 과정에서 그녀는 또 남권중심 사회에서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주변자로서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비극적으로 드러내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에서 사회의 주변적 존재로서 여성의 불행한

3) 陳美林, 《儒林外史人物論》, 中華書局, 1998, pp.33-34.

4) 엄감생의 감생 자격은 捐納으로 얻은 것이 분명하다. 陳美林, 같은 책, p.31.

처지에 대한 작가의 동정적 시선을 어렵게나마 읽을 수 있다. 물론 축첩제도 자체의 모순과 비극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도 행간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두 번째 인물 王太太⁵⁾는 17살에 난봉쟁이 친오빠에 의해 첩으로 팔려갔다가 본처에게 쫓겨나고, 후에 지체 있는 집안에 후처로 들어가나 남편의 사망으로 또 홀몸이 되었다가 다시 鮑廷璽의 처가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조이남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이 비교적 은밀한 것이었다면, 왕태태의 그것은 상당히 노골적이다. 처음 첩으로 들어갔다가 쫓겨난 까닭부터가 첩으로서의 대우를 거부하고 ‘마님’ 대접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후에 비록 후처 자리이기는 하지만 꿈꿔오던 ‘마님’의 지위를 획득하여 권세를 휘두르며 살게 되나, 머지않아 남편이 죽는 바람에 전처소생의 아들과 재산 다툼 끝에 홀로 나와 사는 신세가 된다. 다행히 적잖은 재산을 챙기게 된 그녀는 사치스럽고 나태한 생활을 이어가며 다시금 벼슬집의 마님이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그녀는 남성의 부귀공명에 철저히 기생하려는 욕망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런 인물이 포정새와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포정새의 養母와 그 사위 歸姑爺의 계략에 의해서이다. 평소 양자로 들어온 포정새를 미워하던 양모는 오로지 금전욕 때문에 신붓감의 위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사를 추진한다. 극단 관리인이라는 하층 신분의 포정새는 본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님’ 출신 과부와의 결혼을 원하지 않지만, 그의 뜻은 완전히 무시된다. 그런가 하면, 신분상승의 욕망으로 가득한 왕태태는 귀고야의 사주를 받은 중매인의 허언과 감언이설에 의해 신분이 천한 포정새와의 혼인을 수락하게 된다. 결국 포정새는 원치 않는 상대와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고, 왕태태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상대라고 오해한 채 혼인을 하게 된다. 결혼 후 모든 것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왕태태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왕태태의 재산만 보고 혼사를 강행했던 양모와 귀고야 역시 왕태태가 병치레로 재산을 모두 축내자 아무 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포정새 내외를 강제로 내쫓는다. 이로써

5) 제25, 26, 27, 33회에 등장한다.

왕태태의 마님으로서의 꿈은 또 한 번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왕태태는 장기간 병을 안은 채 울음과 낄두리로 세월을 보낸다. 결국 이들 부부의 관계는 애초부터 비뚤어진 욕망과 강압, 거짓과 오해로 얼룩진 기형적인 관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왕태태는 작품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여성 인물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문제가 있다. 곧 포정새의 결혼에 대한 작가의 시각이 그것이다. 포정새의 결혼은 비록 양부 鮑文卿 사후 居喪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상중에라도 꼭 재혼을 하라는 포문경의 유언이 있었을 뿐 아니라, 혼사 자체도 당사자의 뜻이 아닌 양모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 포정새가 후에 假名士와 팔고문 選文家 등과 어울리며 점차 타락해 가기는 하지만, 이때까지는 군자다운 포문경의 장점을 잘 이어 본분을 지키는 비교적 긍정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작가는 ‘포정새가 아버지를 여의고 색시를 얻다(鮑廷璽喪父娶妻)’라는回目(제26회)을 통해 포정새가 거상 중에 결혼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에 대한 풍자의 뜻을 드러낸다. 이는 ‘효’를 지나치리만치 중시하는 작가의 사고⁶⁾가 서사의 객관적 흐름과 무관하게 도드라진 예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왕태태라는 심술궂은 인물과 포정새의 결혼이라는 설정이 작가의 이 같은 과도한 효관념에 기인하는 일종의 서사적 응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작가의식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되면서 왕태태의 인물형상이 더욱 부정적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왕태태가 악녀적 형상으로 묘사되고 날카로운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이 시사하는 전통시기 하층여성의 운명에도 눈돌려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첩으로 팔려갔다가 본처에 의해 쫓겨나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곧 남편을 잃고 유산 다툼에 휘말리며, 홀로 나와 살면서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매파에게 속임을 당한 세 번째 결혼에서는 울분으로 지병을 얻어 결국 재산도 다 잃고 시집에서

6) 이 점은 작품 가운데서 작가의 화신으로 알려진 杜少卿의 선친에 대한 지극한 효심에서 잘 드러난다.

쫓겨나는 등 삶 자체가 불행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상세히 묘사되는 세 번째 결혼과 관련해서는, 시모의 탐욕에 의해 악의적으로 혼사가 이루어지고 결혼 후에는 시집의 냉대를 받다가 다시 일방적으로 내침을 당한다는 점에서 주변자로서 여성의 신산한 운명을 규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왕태태의 신분상승 열망 역시 이러한 운명에서 최대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과도 같은 것이며, 또한 그것이 과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부귀공명에 대한 지향과 기생의 방식이 아니 고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현실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인물 빙낭⁷⁾은 청루거리의 기생으로, 작품 正文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어려서 배우 출신 하층민 집안에 민며느리로 들어가 훗날 이름난 기생이 되는데, 그녀는 자신의 미색을 자부하고 벼슬아치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며 벼슬집의 마님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한다. 빙낭이 가명사 陳木南에게 잠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분명한 목적 때문이다. 진목남이 곧 관원이 될 것이라는 말에 빙낭은 자신의 미래를 걸어보지만, 그녀가 知府의 부인이 되는 남가일몽을 꾸는 대목에서 예견되듯 그것은 헛된 망상에 그치고 만다. 그녀는 진목남이 가난뱅이 가명사에 불과함을 눈치 채고 또 다른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지내지만, 끝내 그녀를 착취하는 기생어미와의 갈등 끝에 출가의 몸이 되는 것으로 속세의 삶을 마무리한다.

빙낭과 진목남의 관계는 겉으로는 마치 한 쌍의 재자가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은 동상이몽의 속물적 관계를 드러내 보일 뿐이다. 빙낭은 진목남의 시를 좋아하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기실 진목남을 통해 그 친척이자 명문자제인 徐九公子에게 접근하려는 것이 본래 속셈이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지체 있는 집안의 마님이 되는 것뿐이다. 진목남 역시 빙낭을 찾는 까닭이 그녀가 자신의 시를 높이 평가해주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색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그는 서구공자와 자신의 관계를 과장하고 곧 벼슬길에 오를 것이라는 등 거짓으로 일관하게 된다. 후에 기루에서 그의 정체를 눈치 채고 냉대하기 시작하자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것에서도 빙낭에

7) 제53, 54회에 등장한다.

대한 그의 마음이 진정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더욱이 둘 사이의 관계는 애당초 돈으로 팔고 사는 '놀이'에 불과한 것이었다. 작가는 두 인물의 이러한 일그러진 관계로 정문을 마무리하면서 하층 여성의 내면에까지 깊이 뿌리내린 부귀공명의 욕망과 타락한 지식인의 말류를 암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진목남이란 인물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속물적인 기생하고나 시로써 교류하는 타락한 가명사의 말로를 바라보는 작가의 풍자적 시선이 감지된다. 그러나 빙낭의 편에서 보자면, 그녀의 삶에서도 하층 여성의 비극적 운명이 자못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그녀가 처음 민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되면서 그녀는 늘 벼슬아치나 숙된 남성들의 노리개 역할을 하며 착취 가운데 살아간다. 더욱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한 생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나대로 살게 그냥 놔 줘!(放我一條生路去罷!)”(제54회)라는 그녀의 ‘외침’은 그러한 삶의 어두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그녀는 자살 소동 끝에 운명과도 같이 출가의 몸이 되고 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세속적인 견지에서 보자면 이로써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도 이루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나마 ‘名妓’로서의 ‘자리’조차 잃고 마는 것이다. 빙낭의 속물적 면모를 예리하게 풍자하면서도 매도하지 않는 것은 하층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동정심이 작가 의식의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일 터이다.⁸⁾ 한편 작가는 이 같은 사회 최하층의 기녀가 부귀공명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설정을 통해 과거제도로 심화된 부귀공명의 욕망이 지식인사회를 지배하고 나아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심각하게 오염시켰다는 현실인식을 부각시키는데, 이런 점에서 빙낭의 이야기는 작가의 현실비판 정신과 여성의식의 미묘한 접점이 되고 있다.

8) 오경재는 일찍이 南京 秦淮의 한 歌女를 위해 시 「閑情」 4수를 지어 가녀를 名士와 대등하게 언급하며 여성에 대한 평등의식을 표출한 바 있다. 孟醒仁, 孟凡經, 《吳敬梓評傳》, 中州古籍出版社, 1987, pp.145-148.

3. 복합 젠더와 양성관계의 두 양상

魯小姐와 沈瓊枝⁹⁾는 이상에서 살펴본 세 여성인물과는 구별되는 일련의 차이점들을 보이면서, 또 두 인물 간의 묘한 이동점으로 대비를 이룬다. 이 두 인물은 우선 앞서 소개한 세 인물과는 달리 하층민 출신이 아니다. 노소저는 翰林院 編修라는 고관의 딸로, 심경지는 貢生의 딸로 등장한다. 또 이들은 모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지식여성이란 점에서도 차별적이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이들 두 인물이 여성이면서 일종의 남성적 젠더를 보인다는 점이다. 두 인물은 이 같은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매우 대조적인 가치지향을 드러낸다는 면에서 흥미로운 비교대상이 된다.

먼저 노소저¹⁰⁾는 고관의 딸이라는 신분뿐 아니라 빼어난 자색과 걸출한 재능을 타고난 인물로 묘사된다. 그녀는 외동딸인 그녀를 아들 삼아 기르는 부친 魯編修 밑에서 어려서부터 엄격한 과거시험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팔고문 외에 다른 학문은 모두 쓸모없고 샅된 것으로 보는 노편수의 가치관은 노소저에게 그대로 주입되어, 그녀는 드디어 팔고문의 고수이자 노예로 성장하게 된다. 과거공부를 완벽하게 이룬 딸을 보며 “만약 아들이었다라면 진사급제, 장원급제를 골백번은 했을 텐데!(假若是個兒子, 幾十個進士狀元都沖來了!)”(제11회) 하고 탄식하는 노편수에게서 과거제도로 인해 형성된 욕망의 기형화를 목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소저는 여성의 몸으로 스스로는 결코 과거공명의 꿈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의 벽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이식된’ 욕망과 가치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늘 팔고문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려진다.

노소저의 이러한 성격적 특징은 여성으로서 관습적인 젠더역할에 어긋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젠더 질서의 파괴는 결국 정체성 문제를 낳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기성 질서를 회의하거나 그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물

9) 심경지는 여성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인물형상으로, 오경재 당시 실존했던 松江 張宛玉이 그 원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何澤翰, 《儒林外史人物本事考略》, 上海古籍出版社, 1985, pp.68-72.

10) 제10, 11, 13, 14회에 등장한다.

학적 성별로 인해 이를 수 없는 남성 젠더적 욕망을 오로지 배우자를 통해 추구하게 된다. 그녀의 남편 蘧公孫은 준수한 외모의 소년 명사라는 이유로 노편수의 눈에 들어 노소저의 짝이 되는데, 부부 사이에 '정체'를 서로 인식하게 되기 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그야말로 '딱 어울리는 재자가인 한 쌍(才子佳人, 一雙兩好)'(제11회)이라 할 만큼 더 없이 완벽한 결합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노소저는 남편이 詩賦에 빠져 팔고문에는 거의 문외한인 것을 알고 실망과 울분을 이기지 못한다.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녀가 남편의 擧業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몸이 닳여진 연후에 집안이 다스려진다(修身而後家齊)'는 제목으로 팔고문을 짓게 하는 장면이다.(제11회) 유교 사회 지식인의 기본적 당위인 수신과 제가라는 덕목을 들어 권력자가 지식인을 평가하고 등용하는 형식인 팔고문을 짓게 한다는 설정에서 노소저가 적어도 과거출사의 길이라는 공적 영역 차원에서는 가정 내에서 남성적 젠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편 남편에 대한 기대가 무망한 것으로 드러나자 그것은 곧 그녀에게 '자신의 일생을 망친 것'으로 인식된다. 대갓집 딸로서 이미 충분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남편이 진사급제를 하지 못 하는 이상 그것은 그녀에게 별 의미가 없다. 진사급제의 꿈이란 다름 아닌 노소저 자신의 남성 젠더적 꿈에 다름 아닌 까닭이다. 이로 인해 팔고문을 속된 것으로 여기는 거공손과 시부를 오히려 사된 학문이자 우스갯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노소저 사이에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깊은 골이 패이게 된다. 결국 노소저는 남편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대리 성취하겠다는 기대를 접고 대신 그 욕망을 어린 아들에게 기탁한다. 그녀의 집요한 욕망은 네 살짜리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매일 늦은 밤, 심지어 날이 썰 때까지 팔고문을 공부시키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노소저는 아버지의 욕망을 그대로 이식받은 대리만족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녀는 어떤 남성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펼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회의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이식된 욕망의 노예로서 기능할 따름이다. 그녀의 이식된 욕망은 제도권의 틀 내에서 구심적 직선운동을 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녀는 과거출사라는 공적 영역 이

외에는 가부장적 젠더 질서에 순종하는 전형적인 여성 젠더 역할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특별한' 교육에 절대 복종하고, 원망과 반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남편에게는 직접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못하며, 시댁에 대해서도 순종적이고 현명한 며느리로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노소저는 공적 영역과 관련된 타율적으로 내면화된 남성적 젠더와 사적 영역에서의 순종적인 여성 젠더를 한 몸에서 지닌 기형적인 복합 젠더의 소유자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념을 벗어난 이러한 복합 젠더의 설정은 관습적인 '재자가인' 모티프의 환상을 여지없이 깨는 이야기의 흐름¹¹⁾과 더불어 과거제도의 폐단과 부귀공명의 욕망으로 오염된 현실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데 기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소저에게서 나타나는 남성적 젠더는 애초부터 타율적으로 '입혀진' 것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 성별과의 불일치로 인해 그녀에게 정체성의 혼란과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설정의 행간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나며, 이런 측면은 앞

11) 노소저와 거공손의 이야기는 청대 초기에 크게 유행했던 재자가인류 이야기에 대한 작자의 비판적 인식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주지하듯 대다수의 재자가인류 이야기가 이상적인 재모의 남녀가 시를 매개로 교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며 남성의 과거급제 등을 통해 부부로 결합하는 등의 내용을 기본 패턴으로 하면서 비현실적인 경향을 띤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체로 실의한 문인 작가의 보상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현실을 미화하거나 비현실적, 또는 현실도피적인 경향을 다분히 보인다. 이에 비해 노소저와 거공손의 이야기는 두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한 쌍의 재자가인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팔고문과 과거공명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양자의 관계가 심각하게 일그러진다는 설정으로 일반적인 재자가인류 이야기 패턴을 회화하는 양태를 보인다. 여기에는 작가가 일종의 패러디적 수법을 통해 일반적 재자가인류 이야기의 비현실적 경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점은 또 《유림외사》와 더불어 강한 현실비판정신과 작가의식을 드러내는 《홍루몽》의 제1회에서 기존 재자가인류 소설과 영정소설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노소저의 인물 특징에 대해 齊省堂增訂本(1874) 평점은 挾批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팔고문을 올바른 본업으로 삼고 시는 우스갯거리로 여기다니, 노소저는 진실로 소설 가운데 소저 인물의 낯은 틀을 완전히 벗어났도다.(以八股文爲正務, 以詩爲笑話, 此小姐眞脫盡小說中之小姐窠臼矣.)"(李漢秋, 儒林外史彙校彙評本, 上海古籍出版社, 1999, 141-142쪽, 제11회.) 이러한 지적은 평점가의 것이기는 하지만, 노소저의 이야기가 기존의 일반적인 소설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문제를 방증하는 정보로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오경재의 이러한 태도는 전술한 빙낭과 진목남의 고사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결론적으로 재자가인 이야기에 대한 작자의 부정적 태도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양성관계를 미화함으로써 심각한 현실모순을 은폐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명확한 현실인식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 살펴본 세 여성의 삶이 시사하는 여성의 운명과 일정하게 궤를 같이 한다.

이제 심경지¹²⁾의 상황을 노소저와 비교해 가며 살펴보기로 한다. 노소저 만큼 지체 있는 집안의 여성은 아니나 貢生 신분의 부친을 둔 그녀는 시문에도 조예가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다만 노소저와 같이 팔고문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잡학’으로 인식되는 시문에 능한 지식여성으로 그려지며, 부귀공명에 대해서도 초연한 인물로 그려진다. 미모와 더불어 바느질과 자수에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호협한 기상과 무예를 가진 여결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남성적 젠더를 다분히 지닌 그녀는 기성의 남성 중심적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여성에게 주어진 굴종적 한계를 감연히 뛰어넘으며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급진성을 체현한다. 중요한 점은 그녀에게서 나타나는 남성적 젠더가 노소저의 그것과는 달리 타율적으로 이식된 것으로 그려지지 않으며, 그것이 외화되는 양상도 제도권의 틀을 가로지르고 뛰어넘는 원심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심경지의 여결적인 인물성격은 우선 그녀가 鹽商 宋爲富의 첩이 되기를 거부하고 뛰쳐나오는 것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부호인 염상의 첩이 되기를 거부한 것은 부를 초개같이 여기고 권세와 가부장적 질서를 앞세운 강압에 맞서는 것이자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 삶의 요구를 드러냄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세속적 질서에 순응하며 기생하기를 거부한 심경지는 남경이란 낮은 공간에서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삶을 개척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 역시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과감한 실천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전 사회가 부귀공명의 욕망에 노예가 된 암울한 현실을 준열하게 비판하는 작가의 의식 속에서 심경지의 이 같은 면모는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는데, 이로써 그녀는 작품 속에서 비중 있게 묘사되는 여성 인물 가운데 유일한 긍정적 인물로 자리 잡는다.¹³⁾

그러나 이 같은 급진적 인물형상을 등장시키면서 작가 역시 그 실험성을 상당

12) 제40, 41, 56회에 등장한다.

13) 심경지는 작품 제56회에서 여성 가운데는 유일하게 진사 자격을 추서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제56회는 일반적으로 작가가 직접 쓴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설정에서도 심경지의 작품 내 지위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이것은 심경지의 남성 젠더적 특징에 대한 제56회 작자의 어렴풋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히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돌출된 언행에 주변 인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점에서 작가의 그러한 사고가 감지된다. 더 나아가 그녀에 대한 작중 주요 인물들의 엇갈린 평가에서는 이러한 인물형이 당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가령 작가의 지우를 원형인물로 하는 武晝의 경우, 심경지가 생계를 위해 자수와 시 등을 판다는 광고를 붙인 것에 대해서 그녀가 창녀일 것이라 추단하며 비웃는 태도를 보인다.(제41회) 심지어 작품 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인 遲衡山도 심경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

남경성이 어떤 곳이라고 감히! 천하의 명사들이 수없이 많은데 누가 그래 계 집한테 시문을 부탁하겠소? 필시 그걸 미끼로 사내들을 낚아보려는 수작이지!¹⁴⁾(제41회)

이는 관습적 젠더 질서의 견고한 구조 가운데 살아가던 당시 지식인들의 보편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는 유독 작가의 화신인 杜少卿만이 심경지에 대해 시종일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같은 부정적 시선과 긴장감을 이룬다.

이 같이 엇갈리는 인식은 소설평점에서도 드러난다. 臥閑草堂本¹⁵⁾ 제40회 回末 總評은 심경지를 긍정적 남성 인물 蕭雲仙과 대등하게 거론하며 “소운선도 호걸이고 심경지 또한 호걸이다.(雲仙, 豪傑也, 瓊枝, 亦豪傑也.)”¹⁶⁾라고 함으로써 긍정적 시각을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른 평점가들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黃小田¹⁷⁾은 臥評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심경지를 어찌 소운선과 같이 놓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평어는 크게 잘못되었다.(沈瓊枝何得與蕭雲仙並論? 此評大謬.)”¹⁸⁾고 정

14) 南京城裏是何等地方! 四方的名士還數不清, 選那個去求婦女們的詩文? 這個明明借此勾引人.

15) 嘉慶 8년(1803)에 출판된 것으로 현전하는 최초의 판본이자 평점본이며 평점자는 미상이다.

16) 李漢秋, 같은 책, p.503.

17) 황소전 평점본은 天目山樵本(張文虎, 1808-1885) 평점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나왔으나, 간행되지 못하여 묻혀 있다가 1985년에야 過錄된 판본이 발견되어 1986년에 黃山書社에서 출판되면서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8) 李漢秋, 같은 책, 같은 쪽, 黃評 批批.

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天目山樵本¹⁹⁾의 회말총평 또한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인물의 성별을 떠나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 기저에 여성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깔려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²⁰⁾ 심경지는 이처럼 전통 지식인들 사이에 논쟁적 상황을 야기할 만큼 급진적 인물형상으로 인식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심경지는 결국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공된 인물이기에, 인물형상화에 있어 일정한 흠결을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가령 그녀가 염상 송위부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이미 눈치 채고도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송가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는다는 설정이라든지, 송위부의 집에서 탈출하면서 적잖은 재물을 탈취해 달아나는 대목이라든지, 후에 그녀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흐지부지 처리되고 만다든지 하는 점 등에서 인물 형상화의 문제점 또는 불완전함이 지적되고 있다.²¹⁾ 이는 심경지가 리얼리티를 온전하게 구현하기 어려운 이상적 가공인물이라는 점에 일차적으로 기인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본다면, 이러한 인물형이 작가 당대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주체적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는 당시 여성들의 존재 환경의 분명한 한계를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4. 평등의식과 양성 공존의 지향

이제까지 살핀 5명의 여성 인물에게서 볼 수 있는 양성관계는 각기 상황은 달라도 기본적으로 모두 상호 진정한 소통과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그러지고 왜곡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작품 속에는

19) 천목산초 평점은 크게 두 가지로, 光緒 7년(1881)의 上海申報館 제2차 排印本 평점과(天一評) 광서 11년(1885)에 寶文閣에서 간행한 《儒林外史評》(天二評)이 중심이 된다. 천평은 와평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이 컸던 평점으로 평가된다.

20) 한편 평점본의 광범위한 유행으로 사실상 소설 작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이 같은 평점의 노출은 그 자체로 논쟁적 담론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21) 陳美林, 같은 책, pp.196-197.

양성 간의 평등하고 상호적이며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지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 이는 주로 두소경 부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두소경이 작가 스스로를 투영한 인물임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지적할 만한 것은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 절대다수가 부정적 인물이거나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남성 인물의 관련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작품 가운데 소수에 불과한 긍정적 인물들의 경우, 그들의 양성관계는 의아스러울 정도로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두소경의 경우에도 그가 고향을 떠나 남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 언급되고 묘사되고 있음에도 그와 관련된 어떤 여성 인물도 등장하지 않는다. 남경 이주 후에도 사실상 그의 처와 심경지만이 관련인물로 등장할 뿐이다. 이것은 작가가 그만큼 양성관계, 특히 긍정적 인물들의 그것에 대한 묘사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스러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²²⁾

두소경 부부 사이의 관계는 두소경이 남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부터 몇 차례에 걸쳐 간략히 묘사되고 있다. 두소경의 처는 여러 차례 등장하기는 하지만,²³⁾ 한 번도 상세히 묘사되지 않아 그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그녀가 등장하는 장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부부 사이의 관계와 남편에 대한 그녀의 태도, 그녀의 성품 등을 행간을 통해 간취할 수 있다. 우선 사욕이 없는 두소경이 수많은 재산을 남을 돕는 데 거의 소진하고 결국 타향인 남경으로 이주하여 빈한한 삶을 살고자 하였을 때, 그녀는 한 마디 반대 없이 그의 뜻에 동의한다. 두소경이 世家의 후손이었기에 그의 이러한 결정은 주위 사람들의 큰 만류를 일으킬 정도의 사건이었음에도 남편의 생각에 선뜻 따르는 데서 남편에 대한 그녀의 신뢰와 이해심이 엿보인다. 또 이후 그녀는 두소경이 외지에 나갔다가 여비가 떨어져 낭패를 봤다는 말에도 그저 웃음으로 답하고, 가난한 살림에도 두소경을 찾아오는 많은 손님을 손수 대접할 뿐 아니라, 두소경이 벼슬에 등용될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을 때도 역시 웃음으로 이해하는 관후함을 보인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22) 참고로 작가는 두소경의 처에 관해서 그녀의 출신배경이나 지식수준, 외모 등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붓을 아끼고 있다.

23) 제33, 34, 36, 37, 41, 44회에 등장한다.

상대방을 자신의 부귀공명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대상화하는 작품 속의 많은 부정적 여성인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그녀가 두소경의 가치관과 사람됨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터이다. 경계의 대상일 법한 심경지가 두소경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을 때 그녀를 살갑게 맞아주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두소경에 대한 그녀의 일방적인 순종 차원의 것이 아니다. 두소경의 아내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선 남경으로의 이주라는 큰 문제를 두고 두소경은 이를 아내와 상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남경 이주 후 바깥 경치를 구경하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흔쾌히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淸涼山을 거니는 대목이다. 여성의 바깥출입과 행동이 제한되고 남녀유별이 엄격히 강조되던 현실 속에서 두소경의 아내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남다른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두소경이 남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주 아내를 데리고 술집에 출입한다는 언급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문제이다.

두소경 부부의 관계는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소통하고 교감하는 동지적 관계로 드러나는데,²⁴⁾ 그 바탕에는 작가의 다음과 같은 생각이 깔려있다.

“무릇 선비는 마음속으로 벼슬을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먼저 아내 앞에서 거드름을 피려 하고, 아내는 관리 부인이 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사사건건 불만을 품고 까탈을 부리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 속의 부부 사이가 어떤가 보시오. 부귀공명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거문고나 타고 술이나 마시며 분수를 알고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 은, 주 삼대 이전의 수신제가의 군자입니다. 이것도 선인들이 말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²⁵⁾(제34회)

24) 두소경 부부 외에 또 다른 긍정적 인물인 莊紹光 부부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부부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가령 장소광이 황제로부터 벼슬을 하사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 욕심이 없는 그는 이를 사양하는데, 부인은 그의 그러한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 또 장소광은 아내에게 책을 읽어주며 함께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는다.(제35회) 이러한 설정 역시 작가가 이상적인 부부관계의 하나로 의도한 것임에 틀림없다.

25) 凡士君子，橫了一個故尊的念頭在心裏，便先要驕傲妻子。妻子想做夫人，想不到手，便事事不遂心，叫鬧起來。你看這夫婦兩個，絕無一點心想到功名富貴上去，彈琴飲酒，知命樂天，這便是三代以上修身齊家之君子。這個，前人也曾說過

두소경이 《詩經》 「女曰鷄鳴」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대목이지만, 사실 이것은 작가의 부부관에 다름 아니다. 작가는 여기서 부부간의 관계가 일그러지는 것은 부귀공명에 대한 욕망 때문이며 그것만 버리면 부부 사이는 친구와도 같은 조화롭고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는 양성관계에 대한 작가의 사고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작품 속에서 이러한 견해가 《시경》에 대한 주자학 중심의 교조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소통과 공존의 평등지향적 부부관이 일종의 탈정전적, 해체적 사고와 접맥이 되고 있는 지점인 것이다. 비록 이 같은 관념이 복고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주자학적 이념이 강화하는 三綱五常의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현실의 윤리관을 문제 삼으며 그것을 수평적인 윤리관으로 재맥락화하려는 미래지향적 함의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안을 다스리는(齊家)’ 것이 위계적인 강상의 윤리질서에 의한 것이 아닌 상호간의 대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을 그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오경재는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빈한했던 인생의 후반기를 묵묵히 함께해 준 후처 葉氏²⁶⁾에 대해 깊은 고마움과 사랑을 지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시기를 동지처럼 함께해 준 엽씨와의 관계를 두소경 부부 사이에 투영하면서 평등하면서도 상호주체적인 부부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작품 속에서 두소경은 “중이나 도사, 장인, 거지건 간에 가리지 않고 사귀는(和尚道士工匠花子, 都拉着相與)”(제34회)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전술했듯이 남들이 경계하고 백안시하는 심경지 같은 인물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일종의 평등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관원인 向鼎과 극단 관리인 포문경 사이의 우정에 대한 묘사에도 이러한 평등의식이 투사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이러한 부분들 역시 작가의 실제 삶의 경험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²⁷⁾ 이와 관련하여 작가는 자신의 아들을 친구 같은 존재로 여기고 대하기도 했으며,²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때로는 기녀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나타내기도 했던

26) 孟醒仁, 孟凡經, 같은 책, pp.77-80, p.140.

27) 孟醒仁, 孟凡經, 같은 책, p.68, pp.144-153. 何澤翰 같은 책, p.23.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점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고자 하는 평등 지향적 관념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이 작품 가운데서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주자학적 윤리관을 보편적인 인간애의 차원에서 재맥락화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소경이 축첩제도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제34회)이나, 王玉輝와 王三姑娘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순절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것(제48회) 또한 이 같은 평등의식과 보편적 인간애에 기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작가의 이러한 사고는 앞서 살펴본 5명의 여성 인물 묘사에서 드러나는 여성 존재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또한 이는 주변적 지식인으로서 작가가 지식인 사회의 타락을 간파하면서 자연히 여성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편재하는 정신적 부패의 문제까지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차원의 비극임을 통찰한 현실인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야를 더 넓혀보면 이러한 사고는 명청시대에 점진적으로 나타난 남성의 남성성 약화와 여성 존재가치의 상승이라는 거시적 변화²⁹⁾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하층 지식인의 급증으로 점차 더욱 주변화되고 생기를 잃어 남성성이 약화되어가는 지식인 사회와는 달리, 지식의 확산과 문화의 보급에 따라 여성이 점차 각성하고 그들의 존재감이 갈수록 증대되어가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그 기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양성 생태의 변화라 할 이러한 큰 흐름을 바탕으로 주변자의 삶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라나게 되고, 거기에서 남성 중심의 수직적 윤리관과 가치체계가 반성되면서 이 같은 평등 지향적 사고가 싹틀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28) 孟醒仁, 孟凡經, 같은 책, pp.141-142.

29) 魏崇新, 「一陰一陽之謂道 — 明清小說中兩性角色的演變」, 張宏生 編, 《明清文學與女性別研究》, 江蘇古籍出版社, 20002, 참고.

5. 맺음말

이상으로 《유림외사》에서 주요 여성 인물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그 양성관계에 주목하여 고찰하고, 아울러 그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작가의 여성관이 어떤 면모를 보이는데 대해 살펴보았다.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여성 인물들의 경우, 한결같이 부귀공명의 욕망에 사로잡힌 노예적 존재로 형상화되며, 남성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철저하게 그에 기생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 그로 인해 그들의 양성관계는 소통과 교감을 이루지 못하는 어긋나고 일그러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그들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과거제도로 인해 극대화된 남성 사회 욕망의 모방욕망 또는 이식된 욕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 그들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타자로서의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불평등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로 그려지는데, 이 때문에 그들의 노예성은 한층 더 암담한 것으로 드러난다. 여성 인물들에 대한 이 같은 묘사는 단순히 지식인 사회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적 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속된 욕망에 의한 노예화의 편재성이라는 심각한 현실 모순을 파헤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작품의 현실비판 정신이 더욱 돌출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현실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모험하고 세속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주체적 존재로서 심경지라는 이상적 인물이 설정됨으로써 부정적 인물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로써 그 비판적 의미가 배가됨은 물론이고, 사회적 모순과 양성불평등을 동시에 지양하고자 하는 진보적 사고의 체현으로 여성 인물의 서사적 의미가 한층 더 고조된다. 이에 더하여 작가 자신을 투영한 인물의 부부관계를 통해 상호 대등하게 소통하는 조화로운 양성 공존적 관계가 문학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양성평등의 지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작품은 여성 사회의 정신적 노예화라는 근원적 현실모순을 날카롭게 해부함과 동시에 타자로서 여성의 운명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여성의 인간으로

서의 가치를 일깨울 뿐 아니라 양성평등과 양성공존을 지향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써 그 자체로 일련의 인문적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작품의 여성 인물들은 작품이 단지 지식인 소설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보편적인 인간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데 일정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할 터이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작품과 작가에게서 암묵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경향성에 관해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전술한 대로 작가는 긍정적 인물들과 관련된 양성관계에 대해서는 극도로 붓을 아끼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과 관련해서는 애정이나 성적 욕망, 성애 등에 관해 일체 언급을 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물들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방면의 묘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여성 인물의 외모 묘사에 있어서도 눈에 띄게 절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빙낭은 ‘살이 풍만하고 무척이나 부드러웠다’는 두 마디 외에는 한 글자도 외설적인 내용을 묘사하지 않아 여성들도 돌려 보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말했다.(自言聘娘豐若有肌, 柔若無骨’二語而外, 無一字稍涉褻狎, 俾閨人亦可流覽.)”는 金和의 지적³⁰⁾에서도 엿보이듯 작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의식적으로 배제했으며, 여성 독자들도 다분히 의식하는 가운데 창작에 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작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덕적 엄숙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긍정적 인물들의 양성관계를 극력 배제하고 있는 것은 작가의 이러한 엄숙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비유컨대 작품 속에서 감춰진 ‘무의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작가가 남성 관음자적 시각에서 여성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했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시종일관 냉철한 이성을 견지하는 작가에게 있어서 이것은 여성 하나 하나가 ‘인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엄격한 도덕적, 이성적 태도가 현실 모순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날카로운 풍자를 밑받침해주는 단단한 토대이자 긍정적 인물들을 이상화하는 서사적 바탕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이러한 경

30) 蘇州群玉齋本『儒林外史』跋, 李漢秋, 『儒林外史研究資料』, 上海古籍出版社, 1984, p.130에서 재인용.

31) 작가는 심지어 못 여성들을 던지시 바라보는 馬二先生의 시선마저도 풍자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엄숙한 태도를 드러낸다.(제14회)

향에서 艷情과 애정의 서사가 범람하던 당시 소설계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전혀 새로운 모습의 소설을 개도하려는 작자의 의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형식에서 뿐 아니라³²⁾ 내용적으로도 기존의 문학적 관습이나 유행, 대중의 기호 등에 영합하지 않고 비판적 지식인의 '立言'이자 진지한 역사서, 사상서로서의 소설을 창조해 내기 위한 작가의 전략적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로 인해서 작품에 드러나는 양성관계가 과도하게 이성적인 방향으로 기울어 인간 내면의 복잡하고 풍부한 감정과 정신의 세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는 나아가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 같은 문제들은 작품에 드러나는 양성관계 및 작가의 여성관과 관련하여 고구해 볼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되나, 진일보한 논의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參考文獻》

- 李漢秋 輯校, 《儒林外史彙校彙評本》, 上海古籍出版社, 1999.
 《儒林外史》, 人民文學出版社, 1991.
 陳美林 批點, 《新批儒林外史》, 江蘇古籍出版社, 1989.
 최승일 등 역, 《儒林外史》, 여강출판사, 1991.
 安徽省紀念吳敬梓誕生二百八十周年委員會編, 《儒林外史研究論文集》, 安徽人民出版社, 1982.
 李漢秋, 《儒林外史研究資料》, 上海古籍出版社, 1984.
 何澤翰, 《儒林外史人物本事考略》, 上海古籍出版社, 1985.
 陳美林, 《吳敬梓研究》, 上海古籍出版社, 1985.
 李漢秋 編, 《儒林外史研究論文集》, 中華書局, 1987.
 孟醒仁, 孟凡經, 《吳敬梓評傳》, 中州古籍出版社, 1987.
 中國儒林外史學會, 《儒林外史學刊》, 黃山書社, 1988.
 陳美林, 《吳敬梓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0.

32) 《유림외사》는 작품 전체를 일관하는 주인공 없이 단편적 이야기들을 병렬적으로 이어가는 독특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작품 첫머리와 결미에 각각 설자와 결미를 독립된 회로 설정한 점, 시사 삽입을 거의 하지 않은 점,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 거의 없다는 점, 기존 장편소설들과 달리 전체 회수를 55회라는 기수로 설정한 점 등에서 드러나듯 형식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다양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陳美林, 《儒林外史人物論》, 中華書局, 1998.

蔡景康, <《儒林外史》婦女形象勝談>, 《廈門大學學報》(哲社版), 1994年第3期.

虞卓婭, <封建末世女性生活的現實圖景——《儒林外史》寫女性>, 《明清小說研究》, 1998年第1期.

魏娟莉, <試談《儒林外史》中“科舉功名”邊緣的女性形象>, 《中州學刊》, 2008年第6期.

《中文提要》

本文以兩性關係爲中心視角, 探討了《儒林外史》中主要女性人物形象和吳敬梓的婦女觀及其特徵和意義. 在小說中, 趙姨娘、王太太、聘娘、魯小姐等負面人物都被描寫爲功名富貴之心的奴隸, 她們顯露出把男性看做實現自己的世俗慾望的手段, 并要徹底寄生于他們的態度. 因此, 他們的兩性關係不能成爲互相溝通的真正關係, 而呈現出一種扭曲的關係. 另外, 她們的慾望基本上具有男性世俗慾望的模倣慾望或被移植的慾望的性格. 而且她們被描寫爲在男性中心社會中不能擺脫不平等命運的“他者”, 因而她們的奴性顯得更加黑暗. 這種女性敘事并不只是爲了突現出儒林問題利用了她們, 而是爲了揭示奴化的遍在性這一現實問題的慎重和策略性的選擇. 另一方面, 作者通過設置作爲主體性存在的沈瓊枝這一理想人物, 使得她和負面人物們形成強烈的對比, 因此作品的現實批判意義更爲突出. 而且她還體現出要把被奴化的現實矛盾和兩性不平等同時克服的進步思考, 更加提高了女性人物的思想意義. 再有, 作者通過杜少卿夫婦的關係, 塑造出互相對等、互相溝通、和諧共處的兩性關係, 更突出地表現了兩性平等的理想. 如此, 小說深刻地解剖了封建女性的奴化這一根本性現實矛盾, 同時還揭示出作爲他者的女性之悲劇命運, 并提醒讀者女性作爲人的價值, 進而指向兩性平等和兩性共存, 這些本身就產生了不可忽略的人文意蘊. 在這一點上可以說, 小說絕不僅是知識分子小說, 而是一部人文經典, 而且作品中的女性形象爲此作出了一定的貢獻.

關鍵詞 : 儒林外史 女性 兩性關係 吳敬梓 婦女觀

이 논문은 2009년 10월 27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